

## 경제위기 청문회 개최해야

유재섭

한국근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



**얼**마 전 일이 있어 우연히 서울역 지하도를 지나가게 되었다. 지하도를 들어서 는 순간 코를 찌른 건 캐캐하고 기분 나쁜 냄새였으며 눈에 보인 것은 여기저기 누워있 는 사람들이었다. 오후 3시경인데도 적지 않 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차가 운 바닥에 신문지나 낡은 돗자리 하나를 깔 채 엎드려 자고 있었고 일부는 끼리끼리 모

여서 뭐가 이야기하고 있거나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웬지 그들과 눈 마주치는 것이 어색하거나 민망할까 싶어 서둘러 지하도를 빠져 나왔다.

매일 이곳을 지나 다니는 분을 만나 지하도의 '풍경'을 이야기하니 그분은 전에는 남자들이 한 사람씩 자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여자들도 함께 있으며 최근에는 아이들마저 보인다고 말문을 흐렸다.

최근 TV를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해 실직 후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노숙자들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정말 큰일이구나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막상 그 초췌한 '삶'의 현장을 보고 나니 가슴이 막혀움을 어쩔 수 없었다.

난 앞으로 열릴 경제침unk회가 정말 '제대로' 진행돼 좌절감과 허탈감속에서  
해하고 있는 힘빠진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작금의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  
IMF터널을 신속히 빠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 소위 '사회지도층'의 작태들

그런데 최근 이보다 나를 더욱 답답하게 한 것은 소위 이 나라 사회 지도층이라 일컬어지는 이들과 일부 부유층의 몰지각한 작태들이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무원들의 부정부패비리가 줄줄이 땅콩줄기처럼 드러나질 않나, 국민의 혈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는 정치가들이 당리당락에 파묻혀 시급한 민생현안을 창고에 처박아놓고 있질 않나, 서민들의 전세값 혹은 집한채값인 수천만원이 몇달치 과외비로 지출되고 있지를 않나, 심지어 1억원짜리 이탈리아제 모피코트나 3백만원을 호가하는 프랑스제 라이터 등을 꾸준히 소비하고 있질 않나 등등.

지금은 작년말 몰아닥친 IMF경제위기 한파로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권이 추풍낙엽과 같아지면서 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온국민의 고통분담과 하나됨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잠자리가 없어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다니는 지하보도에서 신문지 한 장에 의지해 새우잠을 자거나 구호단체에서 주는 부실한 식사 한끼를 얻어먹기 위해 땀에서 긴 줄을 마다않고 서서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는 이들이 폭증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집 한두채값으로 1년에 몇번 입지도 않는 모피코트를 사서 입거나 국민복보다는 사리사

육과 당리당락에 눈이 먼 사람들이 지도층인 사회, 강남의 많은 호화주택에서 IMF이대로'란 소리가 홍청망청 흘러나오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의 일체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고통분담 운운할 수 있겠는가. 좌절감과 허탈감이 온몸을 감싼다. 이것은 비단 나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이다. 오늘도 산업현장에서 언제 잘려나갈지 몰라 불안에 떨며 땀흘리는 대다수 고통받는 우리 노동자들과 이미 공장문을 닫았거나 부도 등의 이유로 거리로 쫓겨난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국민 다수가 한결같이 갖는 느낌일 것이다.

###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사회가 돼야

그런 의미에서 난 앞으로 열릴 경제청문회가 정말 '제대로' 진행돼 좌절감과 허탈감속에서 헤매고 있는 힘빠진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작금의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 IMF터널을 신속히 빠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의 원동력은 바로 공정성에서 나온다. 잘못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고 잘했으면 그에 상응한 보답이 주어지는 '아주 정정말 상식적인 사회'라고 사람들이 믿는 사회라야 그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힘 또한 기대되고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경제청문회 개최결정을 두고 말들이 많다. 경제가 이 지경인데 청문회 공방으로 시간낭비를 해서야 되겠느냐, YS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네 아니네, 청문회에 성역이 있네 없네 등등.

이처럼 말많은 청문회가 우리 정치사에 자리잡게 된 것은 지난 87년 투쟁을 거치면서이며 88년 일해재단 청문회를 처음으로 우리는 청문회 역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간 기대를 갖고 우리가 보아온 많은 청문회는 먹을 것없이 소문난 잔치에 불과했으니 시간낭비라는 우려가 충분히 나올 법하다.

특히 우리는 청문회에 대해 아주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다. 온국민의

경제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하며

필요하다면 YS도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감옥에 가더라도 청문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국민에 대한 '오만불손함'이 절대로 용납되는 사회가 돼서는 안된다.

따가운 관심속에 진행됐던 2개의 청문회, 그중 하나는 5공청문회이며 다른 하나는 한보청문회이다. 우리는 5공청문회에서 이 나라 역사를 심하게 뒤틀리게 했던 5공의 정치권력형 비리와 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이 낱알이 밝혀지기를 염원했다. 또한 한보청문회에서는 경제환란의 서막을 알렸던 한보사태의 정경유착 비리 전모가 드러나 이 나라 정치와 기업문화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들의 무성의한 답변과 오만불손한 태도, 의원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무책임한 폭로와 선정적인 비방, 신문능력 등 역량부족 등을 목격했다. 더욱이 청문회가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는' 요식행위로 이용됐던 기막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청문회 무용론이 괜히 대두됐겠는가. 그러나 최근 몇몇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역설적이지만 청문회무용론은 정말 제대로 하라는 미서운 채찍임에 다름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제청문회는 반드시 열려야 하며 필요하다면 YS도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감옥에 가더라도 청문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국민에 대한 '오만불손함'이 절대로 용납되는 사회가 돼서는 안된다.

특히 김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우리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국민과의 TV대화에서 경제파탄의 원인과 책임자를 밝히는 경제청문회 조기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정치권은 민생도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심각한 파행곡선을 그림으로써 청문회 개최여부조차 불투명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써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 국회의원의 세비반납,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원소환제 등등의 여론이 들끓었고 '국회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피켓시위까지 등장한 바 있다.

### 대통령의 약속인 청문회

그런데 최근 정치권이 매서운 사정한파로 쾅쾅 얼어붙음으로써 청문회 개최가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이 경제청문회에 대해 국민과 한 약속이행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설사 경제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이전에 실패했던 '면피용 청문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또한 여야 모두 진실규명과 철저한 책임규명보다는 당리당략에 청문회를 적극 '악용'함으로써 IMF한국호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는 이번 경제청문회를 위해 정부가 하루속히 과거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이 점과 관련, 한보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5공청문회와 같은 '스타탄생'이 없었던 일면에는 추궁의원들이 금융과 기업활동의 관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다는 지적은 의미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경제청문회의 경우 외환위기가자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과탄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위원들이 경제와 금융정책이나 그 메카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여야간 경제책임론에 대한 정치적 공방으로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경제청문회 핵심은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해 '책임있는 정치문화'와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데 있는 만큼 청문

나는 대통령이 경제청문회에 대해 국민과 한 약속이행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회가 이런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준비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향  
후 이같은 위기에 처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기회로도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6.25이후 최대 동란이란 IMF경제위기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국민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긴급상황이다. 현재  
의 피폐한 삶은 물론 정치불신으로 절망의 늪에 빠져 흩어져 있는 국민  
들의 시선을 IMF탈출을 향한 한 지점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희망은 다름아닌 공정한 사회이며 이는 성역없이  
누구나 잘못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정치논리에 의해 순수  
한 뜻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에 느껴  
질 때라고 나는 믿는다. ❖